



교회 소개

저희 교회는 1994년 7월 3일에 창립되었으며 미국 연합 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의 버지니아 연회(Virginia Annual Conference) 산하 알링턴 지방회(Arlington District)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좇아 주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가운데 서로 함께 맞추어 가며, 환영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협력함으로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 주일 오전 10:45

수요일예배 | 수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주일학교 | 주일 오전 10:45 (찬양, 본당),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실)

중고등부 | 주일 오전 10:45 (찬양, 본당), 오전 11:00 Youth Worship (중고등부실)

속회 모임 | 매월 셋째주

알링턴한인교회 야외예배



Arlingto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2425 N. Glebe Rd. Arlington, VA 22207

☎ 703.276.8018

www.arlingtonkumc.org

September 22, 2019

야외 예배 순서

성령강림절 후 열다섯번째 주일
2019. 9. 22 오전 11:15

집례: 류영성 목사
반주: 박영혜 자매

*조용한 기도

경배와 찬양
축복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만남을

대표기도
성경봉독
창세기 1:31, 마태복음 6:26
이근우 집사
다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And God saw everything that he had made, and behold, it was very good.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sixth day.
(개역개정판 & ESV, 창세기 1:31)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Look at the birds of the air; they do not sow or reap or store away in
barns, and yet your heavenly Father feeds them.
Are you not much more valuable than they?
(개역개정판 & NIV, 마태복음 6:26)

찬양 || 알링턴 한인교회 성가대
설교 ||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 류영성 목사

주일 예배 봉사자 및 행사 안내

주일	특별예배 및 행사	주일기도	식탁친교	친교기도	수요기도	봉헌위원
9/22	야외예배	이근우	교회	권용훈	이성희	이근우 정수경
9/29	입교식, 임원회	김관호	양묘식/김부익	오미경	윤성옥	
10/6	구역회	권정의	이성희	오형석	권정의	
10/13		유관일	정수경	정수경	김부익	

말씀 암송 || Bible Verse For Memory

"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 편 1-2 절

담임목사 설교방송 || Pastor's Sermon on...

교회 홈페이지 | arlingtonkumc.org
워싱턴 TV 방송 (WBS: Cable 채널 30) | 매주 수요일 오후 10:00
라디오 워싱턴 | AM 1310 www.wdct.org 매주 목 오전 6:15, 토 오후 1:00

교회소식

1. 오늘 저희와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 총동원주일 기념품 못 받아가신 분들은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2.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야외예배 식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점심식사 후 레크레이션 시간이 있습니다.

4. 금주 화요일 뮤지컬 관람 가시는 분들(김국희 권사님, 권정의 장로님, 김부익 권사님, 김풍자 집사님, 박계순 권사님, 정구창 장로님, 마혜선 권사님, 마연영 성도님, 이숙형 권사님)은 교회로 7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7:30 분 정각에 출발하겠습니다. 두시간 반에서 세시간 정도 차로 이동후 11시 뮤지컬을 보고, 늦은 점심을 먹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5. 다음 주일 낮 예배에 입교식 있습니다.

6. 다음 주일 예배 후 목회협조위원회, 구역회를 위한 임원회 모임 있습니다.

7. 구역회 10월 6일 오후에 와싱턴제일감리교회와 함께 연합 구역회 우리교회에서 있습니다.

8 성도소식 및 중보기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마혜선 권사님, 남상용 집사님, 김문기 집사님, 장태유 성도님
- * 심기순 집사님(오미경 집사님 어머니)
- * 교통사고 가정 중보기도: 홍목사님, 최목사님 가정 (장인, 장모, 사모님, 처제), 김목사님 가정(사모님, 동인, 수인, 혜인)
- * 한국 방문 중: 이지숙 사모님
- * 유관일 장로님/이성희 권사님 따님 유찬미양의 회복과 유현진(Jordan)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 * 김하영 자매 미국 방문 중입니다. (9월 30일 귀국)
- * 주신순/김효신 성도님 9월 28일까지 중국여행 중입니다.
- * 유관일 장로님 9월 28일까지 통일부 통일위원 대회 참가로 한국 방문하십니다.

9. 지난 4년간 우리 교회 반주자로 섬겨주신 박영혜 자매님(이혁 성도님, 이영인 어린이)께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아콜라 연합감리교회 반주자로서의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봉헌찬양

참 아름다워라 (새찬송가 478)

참 아름다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숨씨 깊도다.

참 아름다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놀 밤하늘 별들이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며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 하도다.
아-멘-

봉헌기도 || 류영성 목사

광고 || 류영성 목사

축도 || 류영성 목사

목회칼럼 1



지난 주 총동원전도주일에 여섯 분이 초대되어 오셨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찾아주신 성도님의 가족 분들도 계셨고, 간간히 찾아주신 손님들도 계셨으며, 처음으로 교회 나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자녀 분들을 방문하셨다가 함께 예배 드리신 권사님도 계셨고, 오랜만에 뉴저지에서 방문한 하민우 청년도 있었습니다. 새롭게 한 분 한 분이 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입교식을 합니다. 저희 교회의 정식멤버가 되는 순서. 새롭게 교회를 나오게 되신 분들, 믿음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이미 직분 받은 분들이시지만 저희 교회에 공식 멤버가 되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더해 주심에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 세계 평화와 고국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지도록
- 우리 선교지를 위해
 - 워싱턴 방송국 (WBS 30),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재정부후원
 - 니카라과 어린이들 후원 (사랑속, 은혜속, 소망속 후원)
 - 박대준 선교사님 (아리조나 인디언 보호구역, 충성속 후원)
 - 이성환, 이원미 선교사님 (탄자니아)
 - 김형백 선교사님 (탄자니아)
-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시기를
- 몸이 아프신 성도들을 위해서 (마혜선 권사님, 김문기 집사님)

목회칼럼 2



지난 4 년동안 저희 교회에서 반주자로 수고해주신 박영혜 자매님 가정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떠납니다. 주일 예배 때 마다 성가대찬양 반주로 또한 예배 반주로 수고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혁 성도님과 영인이, 박영혜 반주자님이 함께 한 시간을 돌아봅니다.
건축이 혼자 있던 시절에, 영인이가 다시 돌아와서 얼마나 기뻐던지요.



성탄절에 건축이와 함께 오프닝멘트를 하던 영인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2 년전과 비교하면 영인이가 정말 많이 크고, 튼튼해지고, 멋있어졌습니다. 에너지 넘치고, 개구장이 소년인 영인의 목소리가 그리워지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이혁 성도님도 우리와 함께 해서 기뻐했습니다.



세 가족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함께 한 시간 참 감사합니다.

